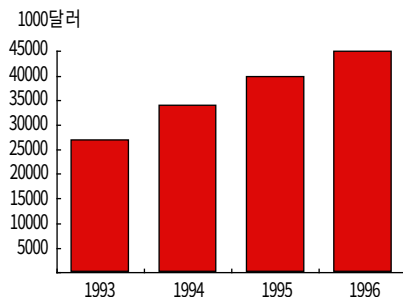


고순도 흑연제품 97년 국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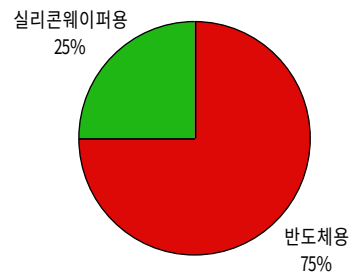
케이씨텍, 합작공장 건설 ... 수요 연평균 20% 신장전망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순도흑연제품의 국산화가 빠르면 97년3월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급신장과 더불어 연평균 20% 고신장해온 국내 고순도 흑연제품의 완전 국산화는 안정공급은 물론 외화가득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순도흑연제품 국내수요는 93년 2700만달러, 94년 3400만달러, 95년 4000만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96년에는 4500만달러로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호조를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고순도 흑연제품 수요추이



고순도 흑연제품 시장구성비



이처럼 고순도 흑연제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LSI(직접회로)의 직접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리콘웨이퍼도 기존의 6인치에서 8인치로 점차 대형화되면서 그 사용량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고순도 흑연제품은 현재까지 100% 수입에 의존하는 등 안정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국내기업의 신규참여가 꾸준히 검토되어 왔다.

이에따라 케이씨텍은 승림카본 및 밀본 도카이카본과 합작으로 안성 제2공단에 총 70억원을 투자해 고순도 흑연제품 공장을 건설, 97년3월 시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97년 상반기에 국산대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도카이카본(자본금 30억원)으로 신규진출하게 될 케이씨텍의 고순도 흑연제품사업은 케이씨텍 40%, 승림카본금속 10%, 도카이카본이 50%씩 출자했다.

국내 고순도 흑연제품 시장은 95년 총 4000만달러 가운데 반도체 에칭처리용이 3000만달러, 실리콘웨이퍼 생산용이 1000만달러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고순도 흑연제품 공급은 케이씨텍이 반도체용 1200만달러, 실리콘웨이퍼용 950만달러규모를 담당하고 있고, 이밖에 삼성전자를 비롯 LG반도체, 현대전자 등 국내 반도체 3사와 LG실트론, 포스코홀츠 등 실리콘웨이퍼 양사가 직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보면 도요탄소, 니폰카본을 비롯해 도카이카본, 히타치카본 등 일본제품이 90%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UCC제품도 10%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향후 국산화될 주요 고순도흑연제품은 실리콘웨이퍼 분야에서 도가니, 히터 등 Hot Zone Part 부품이 주종을 이루며 각종 웨이퍼 프로세스용 치구재, 에피텍선택 성장용 CVD로 및 확산로에서 사용되는 SiC코팅용 제품과 반도체 에칭용 부품이 포함돼 있다.